

문학작품이 미치는 사회현상*

—고다 로항(幸田露伴)의 『오층탑(五重塔)』을 통해
보는 大衆開導 성향의 장인정신과 관련하여—

李 珍 鎬**

(e-mail : jhleeh@wonkwang.ac.kr)

目 次

1. 머리말
 2. 일본의 장인정신과 그 배경
 - ① 사회현상으로서의 장인정신
 - ② 장인정신 확립의 배경
 3. 로항의 『오층탑』과 사회현상
 - ① 『오층탑』의 장인정신
 - ② 명치시대의 시대정신과 『오층탑』
 - ③ 『오층탑』의 大衆開導 성향
 4. 맺음말
-

1. 머리말

원인 없는 무덤은 없다고 했던가, 삼라만상의 추이가 그렇듯 시대의 조류나 현상에는 분명 그 계기나 배경이 있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18C말 프랑스 시민 혁명은 물론 당대 절대왕정의 부조리가 직접적인 계기이겠으나 그 이전에 서유럽에 일고 있던 계몽사상의 영향 또한 간과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계몽사상 또한 17C 서구의 과학혁명을 통해 성립된 先代의 합리주의 사상과 결부된 것이고 보면, 사회현상의 흐름에는 적어도 문화의 수용과 전이과정을 통해 보는 원인과 귀결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 이 논문은 2012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 원광대학교 교수 일본고전문학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일본인의 직업관련 의식을 논함에 있어 우리는 그들의 쇼쿠닌타마시이(職人魂)¹⁾, 즉 장인정신을 빼놓을 순 없을 것이다. 물론 장인정신은 한 가지 일이나 기술에 정통하려는 철저한 직업정신을 일컫는 말로, 오늘날 소위 프리랜서라 하여 轉職이 유행처럼 자유스러워진 풍토 속에서 무슨 장인정신인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작금의 경향 속에서도 일본사회를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인식할 수 있듯, 장인정신은 일본을 대표하는 직업의식으로서 오늘날까지 일본사회 전반에 걸쳐 볼 수 있는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그들의 장인정신은 과연 어디에서 유래했으며 또한 초단위로 변화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들 사회저변에 존속하게 된 계기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 그 영향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어로 職人, 즉 오늘날과 같은 장인으로서의 의미는 본디 南北朝 시대 중후반 이후에 생긴 개념²⁾으로, 전통공예나 수공업적 제조업 기능자와 같이 자신이 익힌 기술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그런데 오늘날 사전류에 의하면³⁾ 그들의 職人氣質은 장인특유의 성질로 마음에 드는 일이라면 이해득실을 무시하고 일에 열중하여, 일견 偏僻된 경향이 있으나 성실하고 정직한 기질을 말하는 것이라 한다. 또한 隱語로서는 한번 맡을 붙이면 빼어나오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상습 절도자를 지칭하기도 하며, <職人貧乏人宝>라 하여 장인은 손재주가 있어 타인에게는 소중한 존재이나 자기 자신은 처세술에 약해 가난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들의 직업관련 의식이나 정신은 일반적으로 에도(江戸) 시대부터 전래되는 기질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에도시대 확고한 신분제도 질서 속에서 직업의 유동이 자유스럽지 못했던 사회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부수적으로는 일본古來의 이에모토(家元) 제도나 徒弟制度和 결부된 그들의 <忠>의 문화를 들기도 한다.

그러면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직업의 이동이 자유스러워진 명치유신 이래 오

1) 쇼쿠닌타마시이(職人魂)를 직역하면 職人の 혼(정신)이 되겠지만, 일본에서 職人이라는 말은 중세 이후의 개념으로, 처음에는 조세를 부담하는 平民의 반대개념, 즉 非農業民의 총칭으로 쓰이다가 나중에는 오늘날과는 다른 의미의 芸能을 業으로 삼는 사람을 총칭하는 말로, 오늘날과는 달리 시대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용되었다(網野善彦他 『中世の風景(上)』 中公新書, 1981, p.88-89 참조). 그러나 본고에서는 현대적 관점에서 직인으로서의 장인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또한 우리말 상의 관례로써 장인정신이라 했음을 밝혀둔다.

2) 網野善彦 『日本中世の民衆像—平民と職人一』(岩波新書, 1980, p.107)참조. 씨에 의하면 職人이 手工業者를 지칭하는 가장 빠른 예는 1367년 남북조 시대 중후반에 성립한 「東寺百合文書」로, 그 후 戦国時代부터 다용되다가 에도시대에는 이미 일반화되었다 한다. 세세한 사항은 『同書』를 참조 바람.

3) 小学館 『日本国語大辞典』에 의함.

늘날에 이르기까지 장인정신이 일본사회 저변에 뿌리를 내리게 된 연유는 과연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 이에는 문학작품의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요소 중의 하나로, 문학은 시대의 조류를 반영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사회현상을 리드하는 요소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장인정신을 일종의 사회현상의 하나로 보고, 먼저 근세주변의 장인정신의 배경과 더불어, 특히 이와 같은 직업의식이 명치유신 이래 신분제도가 철폐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존속하게 된 연유를 고다 로항(幸田露半)의 『오층탑(五重塔)』을 통해 보는 大衆開導 성향의 장인정신과 관련하여 그 영향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일본의 장인정신과 그 배경

① 사회현상으로서의 장인정신

물론 장인정신은 일본, 일본인만의 전유물은 결코 아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도 황룡사 9층 석탑을 세운 백제의 阿非知 이야기나 이탈리아의 유리 가공업 혹은 스위스의 시계산업 등, 동서고금 어느 나라에서나 그 선례를 구할 수가 있고 또한 현재에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범사회적 패러다임으로서 사회현상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느냐하는 점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이것이 본격화되었다 일컫는 에도시대를 차치하더라도 명치유신 이래 서구화를 지향하며 신분제도를 철폐하고 또한 자신의 직업에 대한 天職意識이 흐릿해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회현상의 하나로 그 명맥이 유지되어온 흔적을 구하기에 어렵지가 않다.

그 한 예로 老鋪企業의 존재를 장인정신의 발로라 가정하자면, 2008년도에 조사한 帝国 데이터뱅크에 의하면⁴⁾ 100년 이상 유지되어온 일본의 노포기업 수는 총 1,188,474개 기업 중 19,518개로, 전체의 약 1.6%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율은 그 비교대상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단언할 수는 없으나, 아마도 동북아 3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경향일 것이다.⁵⁾

4) 帝国データバンク資料館・産業調査部編「百年続く企業の条件」朝日新書(2009年)에 의함. 그밖에 세계 한 사항은 관련 사이트 <http://www2.ttcn.ne.jp/honkawa/7467.html>을 참조바람.

5) 참고로, 네트 상에 보이는 것으로 시사일본어사 블로그 <장인정신>에 의하면, 2007년도 일본의 산업창성대학 자료에 의하면 각국의 창업 200년 이상 기업수로는, 일본 3146, 독일 837, 네덜란드 222, 프랑스 196, 영국 186, 기타 999개 기업으로 일본이 단연코 앞서있음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上掲 데이터뱅크자료에 의하면, 그 비율이 높은 곳으로는 교토(京都)가 3.65%로 가장 높고, 이어서 시마네(島根) 3.50%, 니이가타(新潟) 3.37%, 야마가타(山形) 3.25%, 시가(滋賀) 3.11%, 후쿠이(福井) 3.03%순으로, 가장 낮은 곳은 오키나와(沖縄)로 0.08%를 들 수가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당해 지역의 지리나 문화적 특성, 혹은 2차 大戦에서의 공습의 피해유무와 관계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와 같은 결과는 조사에 응한 기업의 수치에 불과하여, 또 다른 설에 의하면 노포기업수가 5万을 넘는다는 설과 10万을 상회한다는 설⁶⁾도 나올 정도이니, 이는 기업의 존속차원에서 본 그들의 장인정신을 대변해줄 것이다.

또한 일본인의 노동관과 관련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⁷⁾ 일본인은 노동의 본질을 금전지향성에 두지 않고 자기완성의 방편으로 여겨 일터를 자아실현의 장소로 삼고 있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의식이 戰後 이래 큰 변화 없이 관찰된다는 점에 있다.

또한 일본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회사인간> 혹은 <맹렬샐러리맨>이라는 말의 존재가 시사하듯, 일본인은 자기직업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 자신의 사적 차원의 생활이나 가정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직업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고 있어, 이것이 일본인의 노동관의 큰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노동관은 일본인의 직업의식의 일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써 그들 직업의식의 내면에 자리하는 장인기질과 더불어 이것이 사회현상의 하나임을 방증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② 장인정신 확립의 배경

그런데 이와 같은 그들의 직업의식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에도시대 이래로 보는 것이 일반론이다. 에도시대에는 士農工商의 인구 균형이 잘 유지되었고 자신의 직업이 무엇을 하든 가업을 잇는 것을 당연시했고 또한 긍지로 생각했다. 이와 같은 사고는 浄土真宗을 비롯한 종교적 영향에 기인한 바도 있어, 특히 인구의 대부분이던 농민을 중심으로 한 묘코닌(妙好人)의 삶이 체제에 순응적이며 忍從적이던 것과도 관계된다.

평론가 야마모토 시치헤이(山本七平)씨에 의하면⁸⁾ 에도시대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에 윤리적 가치를 부여하여 노동을 통한 사회봉사가 마치 불도수행과

6) 前掲 帝国データバンク資料에 의함.

7) 清川雪彦·山根弘子「日本人の労働観—意識調査にみるその変遷」『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法政大学) No.542. 2004, 1

8) 山本七平『日本資本主義の精神』ビジネス社, 2006, 4.

같다는 인식이 일반서민에게까지 널리 보급되었다 한다. 그와 같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인지 지금도 남아있는 언어표현 중에는 쇼쿠닌묘리(職人冥利)라 하여, 장인은 장인이기 때문에 神仏로부터 加護를 받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이와 같은 에도시대의 직업의식은 물론 정치적으로는 신분제도라는 철저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기반으로 한다. 즉, 신분상승을 불허하는 사회구조 안에서 장인은 자신의 業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었고, 그들의 생활의 정도는 오로지 자신의 직업영역 안에서 그 노력여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의 장인정신의 확립을 생각할 때, 그 기저에는 종교적인 측면 이외에도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그들의 노력여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태생적 한계가 작용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태생적 한계는 신분제도가 존재하는 나라라면 어느 나라나 가능한 바로, 그 반대의 경향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종교적 측면을 떠나 신분상승의 불허에서 오는 현실만족이나 자포자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현실적인 면에서 일본의 장인정신은 당시의 신분제도와는 과연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일까?

역사상에 보이는 신분제도로는 일종의 세습제도로써 이미 고대사회에 존재했다. 이를테면 大化改新 이전 대륙의 영향을 받은 部民(部民)이나 律令國家시대를 전후하여 존재했던 氏姓(氏姓)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前者는 조정이나 호족들에 예속된 생산노동자 집단에 불과하고, 後者는 일종의 지배형태로서 특권적 지위를 세습하기 위해 조정에서 부여한 정치제도로 장인정신의 배경으로는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

그러나 에도시대 신분제도 확립에 영향을 준 직접적 계기로는 1582년 이레행해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다이코켄치(太閤檢地)에 1588년에 내려진 가타나가리 령(刀狩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1591년에 포고된 身分統制令에, 1592년 당시의 간과쿠(関白)였던 히데쓰구(秀次) 指畵의 히토바라이 령(人掃令)에서 구할 수가 있다.

먼저 太閤檢地와 刀狩令⁹⁾은 농민의 밭을 땅에 묶어두기 위한 정책으로, 前者는 농지의 기획정리를 통해 수확량을 예상하고 檢地帳(檢地帳)에 등록된 백성의 경작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年貢납부의 의무를 지게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後者는 일종의 민중의 무장해제령으로, 그 배경에는 직전의 兵具停止令과 더불어 승려나 농민들의 봉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각 직능별로 자신의 業에만 전념시키기 위한 신분규제로서 일종의 兵農分離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어서 신분통제령은 武人이 백성이나 상인으로 전업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백성이 경작

9) 이하는 凡人社『日本国史大事典』참조.

을 포기하고 상인이나 장인이 되는 것을 금지한 법령으로, 그 목적은 조선출병을 앞두고 무인과 경비조달의 확보에 있었다. 또한 人掃令은 일본 전국에서 일제히 행해진 가구 수와 인구조사로, 남녀노소는 물론 고용인 상인 백성 장인 승려 神官 등 모든 업종의 신분조사가 광범위에 걸쳐 행해지고 그 이동 또한 차단했다. 이로써 당대에 봉건국가로서의 기틀이 마련되는 셈인데, 이 또한 그 목적은 조선출병을 목전에 둔 병사조달이나 부역을 위한 조치에 다름 아니었다.

이와 같은 신분통제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은 에도시대는 유교가 관학으로 중국고대의 봉건제를 모방하려 했던 유학자들에 의해 사농공상의 四民체제는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지배이념상의 중요한 키워드로 널리 사용되어 정착되기에 이른다. 사농공상이라는 사민의 순서는 물론 유교이념으로 본 사회에 대한 공헌도와 비례한다.

즉 <士>의 武士는 사회지배자로서 가장 상위에 놓여지고, 다음으로 인구의 대부분이었던 <農>은 식량조달과 결부된 조세 담당자로서 중시되나 그 반대로 엄한 통제를 받았다.¹⁰⁾ 그러나 그에 비해 <工>과 <商>은 광의적으로는 職人으로, 오늘날로 치자면 도회시의 서민(町人)계층으로서 유교이념상의 사회공헌도 측면에서는 그 존재가 비교적 경시되었다.

그러나 과거 헤이안(平安) 시대중후반 이래 그들 직인은 신분만큼은 보장받아 그들과 연계된 황실이나 幕府, 혹은 領主, 혹은 귀족이나 寺社에게 물건을 납품하거나 봉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가를 받는 등, 각종의 편의나 이익을 제공하면 그만이었다. 그중에는 給免田畠(給免田畠)라 하여 그 대가로 토지를 하사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토지에 대한 세금은 官衙나 장원지배자로부터 公的으로 면제를 받고 또한 그들에게 예속되지도 않았다.¹¹⁾ 따라서 그들의 직업 활동은 농민과는 달리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다. 즉, 오늘날로 치자면 어느 정도 자유시장경제체제가 담보되었던 것이다. 더불어 그들 중에는 年貢납부나 公事(課役)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받는 특권을 누렸고 자(座)라는 일종의 동업단체를 조직하여 판매를 독점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당시 직인들의 신분보장과 직업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특권은 우리네 인식을 초월하는 것으로, 그들은 실생활 면에서도 농민들보다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었다. 그들은 다만 그들과 연계된 위정자계층의 기호를 자

10) 농민에 대한 통제는 徳川家康의 참모였던 本多正信가 2대 將軍 秀忠의 자문에 응했던 정치입문서 『本佐録』이나 유학자 高野常道가 18C말에 武士들의 준수사항을 담은 『昇平夜話』의 百姓관련 기사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세세한 사항은 笠原一男・野呂肖生 『史料による日本史』(山川出版社, 1978. p.84)를 참조바람.

11) 前掲 注2)의 網野善彦 著書 pp.120-122에 의함.

신의 業에 반영하고 또한 그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業 테두리 안에서 노력만하면 그만이었다. 그 노력의 여하가 자신의 생활의 정도를 결정짓는 주요소라는 점은 누구보다도 그들 자신이 잘 알고 있었고, 또한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는 그들의 직업의식에도 긍정적으로 작용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古來의 직인관련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그들은 평민인 농민과는 달리 직업인으로서 그들만의 자긍심¹²⁾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에도시대를 통해 보는 장인들의 가업유지의 배경에는 종교적인 영향이외에도 바로 이와 같은 그들의 직업 활동의 자유와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자긍심이 자리할 것이다. 논자가 일본의 장인정신의 배경 중 하나로 주목하고자 하는 바도 헤이안 시대 중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들 古來 직인들의 자긍심에 있다.

물론 일본의 장인정신의 배경 중에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도제나 宗家(家元)제도를 통한 이른바 실력우선주의가 자리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즉, 세습에 의하지 않고 혹독한 수련과정을 거쳐 그중 종가에 대한 <忠>과 더불어 실력을 겸비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제도가 그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이 갖는 자긍심은 혹독한 수련과정을 지탱해 주는 정신적 지주임과 동시에 앞에서 언급한 장인기질을 잉태케 하는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임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긍심과 관련된 또 하나의 요소로, 역사학자 아미노 요시히코(網野善彦)씨에 의하면¹³⁾ 헤이안 시대 후반 직인들은 당시 천황가를 비롯한 권문세가나 寺社등에 자신들의 물건을 납품하여 소위 구고닌(供御人) 텡카사이쿠(殿下細工) 요리우도(寄人) 지닌(神人) 등의 칭호를 받고 또한 천황의 법령으로 교묘초(供名帳)가 작성되어 공적으로 신분을 보장받았다 한다. 게다가 이들 직인들은 고대사회의 部民과는 달리 결코 어느 한쪽의 권문세가에 예속됨이 없이 겸임이 자유스러웠다. 뿐만 아니라 직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천황을 보증으로 한 일종의 통행세가 면제되어 여러 나라를 돌며 교역을 하며 자신들의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비록 천황의 정치력이 상실된 시대일지라도 소위 유이쇼가키(由緒書)라 하여 자신들의 職能의 기원을 西國의 경우는 천황, 그리고 東國의 경우는 종종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와 연계시켜 특권의식에 대한 보증의 근거로 삼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자긍심은 분명 예상할 수 있는 바로, 이 由緒書는 에도시대까지 존속된다. 에도시대에는 여기에 바쿠항(幕藩)의 보호도 있어, 일례로 도자기의 경우 아리타야키(有田焼)는 사가(佐賀)県の 나베시마(鍋

12) 당시 職人들의 특권의식과 관련된 예는 前掲書 pp.124-125를 참조바람.

13) 上掲書 pp.125-145 참조.

島)藩의 보호를, 19C 세토(瀬戸)의 도자기는 오하리(尾張)藩의 보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¹⁴⁾ 요컨대 <工>과 <商>의 직인은 비록 외관상의 신분으로는 <農>보다 하위개념이었다고는 하나 평민인 농민보다는 스스로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한 주변여건 하에서 나름대로의 장인기질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일본의 장인정신 확립의 근거에는 헤이안 중후반기 이래 이어진 그들의 자긍심 또한 그 배경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을 것이다.

3. 로항의 『오충탑』과 사회현상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그들의 자긍심에서 비롯된 장인정신이 시대가 일변하여 서구화 일도를 경주하고 만민평등을 외치던 명치시대이래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존속되었다는 점으로, 이에 분명한 어떤 배경이 자리할 것이다. 그중 논자가 주목하고자하는 바는 바로 대중소설로서 고다 로항의 『오충탑』의 영향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문학작품과 사회현상이 불가분 관계에 있음에 기인한다.

문학작품은 그것이 전위문학이 아닌 한 필연적으로 시대의 정신이나 현상을 반영하거나 혹은 역으로 시대정신을 先導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시대가 문학작품을 만들거나 혹은 문학작품이 시대를 만들어낸다고 해야 할까? 가령 前者의 경우 일본 근대문학의 개념으로 모델이나 준거가 있다면 後者は 바로 로항의 『오충탑』이나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등의 문학을 통해 인식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로항의 경우는 후술하겠지만, 소세키는 당시 주류였던 자연주의 문학의 무분별한 자기폭로에 반하여 폭넓은 교양과 사회적 관심으로 인간의 삶의 근원과 가치를 문제 삼은 윤리적 문제를 다루어 당대의 시대정신을 리드했다는 평¹⁵⁾을 듣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현상을 반영 혹은 선도하는 것에는 문학작품 외에도 동질의 매스 미디어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신문이나 방송매체가 그렇고 패션 또한 그렇다. 하물며 그리 달갑지 않은 예이긴 하나, 작년에는 영화 <도가니>가 발단이 되어 실제 행해졌던 사건수사가 재수사되는 일까지 생길 정도였다.

그러나 예술작품에는 그것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제작자의 사상이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상례로, 특히 소설류의 문학작품은 그 표현의 주 대상이 인간인 점에 주목된다. 즉, 문학은 인간의 실생활의 한 단면을 묘사한다는 점

14) 古川清行 『スーパー日本史』 講談社, 1991. pp.428-429

15) 문명 비평가로서의 漱石像은 吉田精一著作集3 『明治の文芸評論』 桜楓社, p.252 이하를 참조바람.

에서 시대의 정신이나 현상을 반영하거나 리드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요소인 것이다. 환언하자면,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바로, 사회현상은 결국 인간과 결부되어 전개된다. 따라서 문학은 태생적으로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리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는 것이다.

① 『오충탑』의 장인정신

그와 같은 관점에서 로항의 『오충탑』은 매우 유효적절한 작품이 아닐 수 없다. 요컨대, 이 작품은 후술하듯 명치라는 당대의 시대정신을 소설 속에 반영하고 또한 동시에 일본古来の 문화적 장점을 살려 대중이 지향해야 할 직업의식을 開導한, 다시 말해 시대정신을 리드한 선구적인 작품이라는 평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 핵심에 자리하는 키워드가 바로 장인정신이다.

『오충탑』은 주변으로부터 느림보 명칭이(のっそり)라는 별명을 듣고 세상을 사는 지혜는 없으나 실력만큼은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떠돌이 무명목수(大工) 주베(十兵衛)가 자신의 손으로 불후의 명작을 남기고 싶다는功名心에서 주변의 질책과 도리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존재로 지혜와 솜씨(手腕)를 겸비한 겐타(源太)와의 탑 건립 주도권경쟁에서 이겨 분투노력 끝에 폭풍우에도 끄떡없는 견고한 오충탑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로, 장인정신은 특히 주인공 주베의 캐릭터를 통해 잘 나타난다.

그러나 주베의 장인정신은 그가 무명의 목수이긴 하나 장인으로서의 기량은 물론, 장인기질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의 부인 오나미(お浪)와 그에게 일감을 주는 큰형님으로 탑 건립의 경쟁자이기도한 겐타, 그리고 주도권경쟁의 중재인으로 高德하기로 소문난 큰스님 로엔(朗門)에 불과하다.

그에 대한 주변의 평가는 그의 별명이 시사하듯, 죽은 닭처럼 목을 축 늘어 뜨리고 느리게 걷는 외관(2)16)과 느긋한 성격(13), 그리고 오로지 일 하나에만 천천히 공을 들여 工期를 제대로 맞춘 적이 없는 캐릭터(17)에서 볼 수 있듯 언제나 부정적이었다. 여기에 오충탑 건립에 겐타의 경쟁자로서 혹은 공동으로 하자자는 겐타의 제안을 일거에 거절한 뒤에 얻는 주변의 평가는 큰스님께 아부나 떠다는 소문(2)과 더불어 솜씨도 없어 구멍이나 파는 존재(3), 의리도 모르는 놈(3, 14, 17), 은혜도 모르고 몰인정하여 배은망덕한 놈(13, 14, 15, 18), 흙인형(土人形) 혹은 개나 까마귀(14)에 비유되는 짐승 같은 놈(14, 17), 도리도

16) 본고의 텍스트는 明治文学全集25 『幸田露伴集』을 근거로, 이상경 옮김 『오충탑』(도서출판소화, 1998)을 참고로 했다. 아울러 본문의 내용은 「其一」에서 「其三十五」로 끝을 맺는 원문 해당부분의 개별 隣만을 숫자로 기재하기로 한다.

모르는 대약무도(15, 17), 세상을 사는 지혜가 없는 놈(15), 벽창호에 다른 사람과의 교제도 없는 떠돌이 목수(17) 등등, 실로 목수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부정할 정도의 캐릭터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주베의 솜씨를 인정하는 그룹으로서, 먼저 오나미의 평가는 남편으로서의 소중한 존재를 떠나 목수로서의 기량은 겐타도 인정할 만큼 확실하나 세상물정에 어둡고 너그럽고 착한 나머지 일감을 자주 빼앗기는 가난한 존재(3)로, 冒頭に 언급한 <職人貧乏人宝> 그 자체이다. 그리고 큰스님 로엔은 먼저 주베가 만든 오층탑모형에 탄복하며 솜씨로 겨루기보다는 소위 처세술을 통한 지혜(지략)에 농락당하는 작금의 장인계의 현실을 주베로부터 거짓 없이 듣고 탑 건립을 향한 그의 외곬성향에 눈물을 흘리며, 주베의 정신은 공부하는 学徒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일이라 자평하며 그를 소중한 보석의 미광에 비유(7)한다.

한편 주베의 장인정신은 누구보다도 같은 직종에 종사하며 솜씨를 인정받아 장래 도편수감(棟梁株)이라 평가받는 겐타가 잘 아는 법, 주베 또한 겐타의 장인으로서의 기량과 지혜를 결코 부정하지는 않는다. 즉, 둘은 서로의 장인정신과 장인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作中에 두 사람을 통해 묘사되는 장인정신은 개인의 사리사욕 없이 명예로운 일에 자신의 훌륭한 솜씨를 발휘하여 후세에 이름을 남기려는 無償의 공명심(13)으로, 그것은 누구의 도움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주도권경쟁 과정에서 큰스님 로엔의 중재(說經)에 따라 탑을 공동으로 건립하자던 겐타의 타협안은 결국 주베에 의해 일거에 거절당하고 탑 건립의 주도권결정은 다시 로엔에게 돌아가나, 실은 겐타 자신도 장인으로서의 공동제작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극복하고 제안한 타협안이었던 것이다(15).

즉, 겐타의 타협안의 핵심에는 로엔의 중재는 물론 의리와 인정을 자랑하는 에도토박이(江戸っ子腹)가 갖는 남자(사나이)로서의 명성이라는 일종의 세상을 사는 지혜가 있었고, 이를 거절한 주베의 명분은 비록 남의 품팔이는 될지언정 자신의 번영을 위해 남의 기생목(寄生木)이 되어서까지 이루고 싶지는 않다는(18) 장인으로서의 자존심, 환언하자면 자신이 신뢰하는 솜씨를 통해 인정받는 장인이고자 했던 것이다.

요컨대 진정한 장인정신의 모습은 세상을 사는 지혜보다는 실력이 주안점으로, 작중의 주베를 통해 나타나는 고지식하고 편벽된 캐릭터는 진정한 장인으로서 일반범인과는 다른 차원의 정체성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탑 건립의 주도권은 결국 주베로 결정되는데, 이는 즉 겐타는 주베의 주도권을 수용함으로써 사나이로서의 명성을 얻고 주베는 솜씨 있는 장인으로서의 기회를 얻은 셈이다.

그 후 주베의 탑 건립을 향한 행보는 매의 먹이사냥에 비유되어(23) 일사천

리로 진행된다. 그 모습은 마치 한눈을 팔지 않는 늙은 소의 어리석음처럼(23) 그는 妻子의 존재는 물론 세상과도 인연을 끊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탐 건립에만 매진함으로써 우리네로 하여금 장인정신의 모범을 실감케 한다. 즉, 주베는 그 과정에서 겐타의 정성어린 도움도 정중히 거절하고(21), 나중에는 겐타의 수하로 주베의 도리에 어긋난 처사에 불만을 품은 세키치(清吉)에 의해 왼쪽 귀가 잘려나가는 큰 부상(25)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불사하며 오로지 오층탑 건립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 것이다(30).

그 결과 주베에 의해 완성된 오층탑(31)은 때마침 천지를 一掃할 기세로 몰아치던 대자연(飛天夜叉王)의 분노(폭풍우) 앞에서도 무고하여 자신의 공명심을 숨쉴 틈을 통해 발휘하려 했던 주베의 장인정신은 드디어 그 결실을 맺는다. 그러나 그의 장인기질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즉, 폭풍우로 자신의 집 지붕이 반이나 휩쓸려나간 와중에도 주베는 오층탑의 안위를 걱정하는 동료들의 불음에 불응(33)하는데, 이는 진정한 장인정신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숨쉴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자신의 일에 혼신의 힘을 역주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으로, 우리는 탐 완성 후의 대단원에서도 주베의 또 다른 측면의 장인기질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② 명치시대의 시대정신과 『오층탑』

그런데 『오층탑』 말미에는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작품성립 백여 년 전, 즉 에도시대 중후반으로 기술되어 있다. 로항의 이와 같은 배경설정에는 그의 문체와 더불어 작중에 보이는 치카마쓰 문자에몽(近松門左衛門)의 작품을 연상케 하는 의리 인정문제 등, 그를 의고전주의 작가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된다.

그러나 에도시대의 장인은 보편적인 면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자긍심이 존재하던 바로, 특히 당시 일반적이던 동업단체 조직과 그에 동반된 <忠>의 문화는 비록 떠돌이 목수이긴 하나 주베와 겐타와의 주도권경쟁을 결코 용인할 순 없었을 것이다. 즉, 작품의 시대배경으로서 일개 떠돌이 목수와 그에게 일감을 주는 존재와의 경쟁은 지금도 그렇거니와 당시의 직업윤리를 통해 보면 더더욱 매우 충격적인 일로 범사회적 측면의 보편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베의 장인정신은 또 다른 측면에선 일본고래의 자긍심을 통해 생성될 수 있는 요소로, 특히 주베와는 달리 겐타에게 충성을 다하는 세키치의 존재는 당시의 시대배경에 부합된 인물조형으로 주베의 장인정신을 극단적 대

립을 통해 부각시키고자한 로항의 의도가 아닐까하는 감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나 로항은 한편으로 명치라는 당대의 시대정신을 작중에 반영함으로써 내용 전개상의 보편타당성을 부여한다.

즉, 여기서는 먼저 시대정신의 수용과 관련하여 『오층탑』이 발표된 명치 25년(1892)을 상한선으로 그 이전의 시대적 상황과 연관시켜 고찰해보기로 한다.

명치시대의 시대정신을 요약하자면 국가주의, 진취적 정신, 무사도 정신, 이 세 가지로 집약할 수가 있을 것이다.¹⁷⁾ 먼저 국가주의는 흔히 일컫는 내셔널리즘으로, 국민 개개인이 국가와 불가분의 동일화 경향을 띤 일종의 국민국가 형태를 띤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利害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관심이 명치인의 공통적 사고로, 이와 같은 성향은 명치 초 자유민권운동의 사상적 지도자였던 우에키 에모리(植木枝盛)의 언설¹⁸⁾을 통해 잘 나타난다. 요컨대, 명치시대는 그 접근방향이나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할지라도 국민각자가 국가의 존립에 관심을 갖고 애국하는 정신이 시대의 조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층탑』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보이질 않는다. 다만, 결과론적으로 후술하듯 로항에 의해 제시된 장인정신은 일종의 대중개도적 성향을 갖는 것으로, 이것이 애국의 한 방편이었음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다음은 진취적 정신¹⁹⁾으로, 명치시대에는 진취적 기질과 실험정신이 횡행하던 시대였다. 입헌제 도입과 자본주의적 생산체제 하에서 문명개화와 산업부흥은 시대의 목표였다. 그 방법으로는 서구열강의 새로운 문물과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사상적으로는 자유로운 발상과 실험정신을 근간으로 한 실증적 학문으로서 실학적 사고가 대세를 이룬 시대이기도 했다. 따라서 대립이나 경쟁이 허용되었고, 이것이 오히려 사회에 활력을 주고 진보를 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고는 명치시대 초의 지식인으로 메이로쿠샤(明六社)의 일원이었던 사카타니 시로시(阪谷素)가 언급한 서로 상반된 대립이나 경쟁이 있어야 비로소 진보도 기대할 수 있다는 언설(「異ノ功用」論)²⁰⁾을 통해 잘 나타난다.

17) 松本三之介 『明治精神の構造』 岩波現代文庫, 2012. pp.14-26 참조.

18) 국가와 국민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결국 국가는 국민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는 국가의 政事を 담당하고 政事は 국민과 관련된 일로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안전하면 국민 또한 安樂하고, 나라가 위협에 빠지면 국민의 목숨 또한 보전하기 어려운 것이다(以上은, 植木枝盛 『民權自由論』 明治12年 『明治文化全集 自由民權篇』 日本評論社 p.184에 의함).(번역은 논자에 의함)

19) 진취적 정신과 관련하여, 종종 명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작품으로 회자되는 漱石의 『ころ』에는 비록 이것이 명치 43년(1910)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긴 하나, 先生의 문구로 「明治の精神に殉死するつもりだ」와 K의 「向上心のないやつが馬鹿だ」라는 말은 乃木希典의 殉死의 영향관계를 차지하더라도 명치의 시대정신과 부합되는 바가 많을 것이다. 즉, 명치시대의 시대정신의 핵심에는 바로 이 진취정신의 「向上心」이 자리하는 것이다.

이를 환언하자면 진보를 유도하는 권위에 대한 도전은 명치유신을 통해 나타난 권력의 이동과 체제형성 과정에서 잉태된 명치인의 반골정신으로, 이는 『오충탑』 내용전개의 핵심에 해당한다. 요컨대 탑 건립을 둘러싼 주베와 겐타와의 주도권경쟁이 바로 그것이다. 즉, 무명목수와 그의 채용권한을 쥐고 있는 도편수감과의 경쟁은 당시의 일반적 직업윤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바로, 여기에 경쟁이 허용되는 명치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셈이다.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당대를 살아가는 로항의 실험정신의 산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사도 정신은 구시대의 계승에 다름 아니다. 사실 명치시대는 진화론을 비롯한 서구의 근대사상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명치의 사상계에 큰 영향을 끼쳤으나, 그 반면에 구시대의 무사도적 인간상이 형식상의 차이는 있었으나 명치인의 인간상의 전형으로 자리 잡기도 한다. 즉, 무사도적 관념이 서서히 사회의 일반적인 그것에 침투되어갔던 것이다.

여기서 무사도적 인간상을 人倫의 길을 실현코자하는 외곶정신에 두고 가정하자면, 『오충탑』에서는 상관 겐타와의 경쟁과정을 통해 보는 타협을 불허하는 주베의 외곶성향이 탑 건립이라는 일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명예로운 일과 조우하여 자신의 숨씨를 신뢰하는 장인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하는 자기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통해 나타난다. 즉 주베는 겐타와의 주도권경쟁에서 비롯된 주변의 질책과 부인 오나미의 설득, 그리고 덕망 높은 큰스님 로엔의 중재와 탑을 공동으로 건립하자는 경쟁자 겐타의 일보후퇴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일편단심 장인으로서의 자신의 의지를 죽음까지 불사하며 관철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오충탑』을 통해 보는 장인정신의 경우, 작품성립의 시대적 배경으로 명치 20년대 초는 문학계에서도 의고전주의를 표방하던 겐유사(硯友社)의 존재가 시사하듯, 국수주의가 사상계의 신평을 불러일으킨 시기였다. 즉 미야케 세쓰레이(三宅雪嶺)를 중심으로 한 政教社그룹의 잡지 『日本人』 동인들은 일본의 국민성을 자각하고 <国粹保存> 혹은 <国粹顕彰>²¹⁾을 슬로건으로 일본고유의 정신이나 장점을 밝히고 알리는데 역주하는 한편,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일본인으로서의 자세를 선도했다.

즉, 지식의 거인 혹은 博覽強記로 유명한 로항이 이와 같은 당대의 조류를 인식하지 못했을 리 만무하고,²²⁾ 따라서 『오충탑』에 보이는 주베의 장인정신

20) 阪谷素 「尊意說」 『明六雜誌』 第19号, 明治7年10月

21) 注)17 p.122 참조

22) 이와 관련하여 三宅雪嶺는 동경대 準교수시절 일본불교사 편찬에 참여한 바 있어, 이는 불교에 관심이 지대하던 로항과의 공통분모로 작용할 것이다.

의 배경에는 이와 같은 당시의 국수주의의 영향, 혹은 그 상관관계를 엿볼 수가 있을 것이다.

③ 『오충탑』의 民衆開導 성향

明治 20년대 초는 독일의 프러시아헌법을 기초로 한 헌법이 발포(1889)되어 인민참여가 실현되는 등, 어느 정도 근대국가로서의 기틀이 마련된 시기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외래문명의 수용이 아직은 미숙하여 혼란을 겪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시기에 한편으로는 국가주의가 시대의 흐름이기도 했던 일본이 과거를 회고해보고 자국의 정체성을 재인식하려는 태도는 과거 일본의 역사가 방증하듯,²³⁾ 어쩌면 당대를 사는 지식인들의 숙명적 과제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충탑』은 로항이 당대의 조류이기도 했던 국수주의에 동참하여 일본고래의 장점인 장인정신의 맥을 잇고자 기획한 지식인의 산물로, 그 집필동기의 저변에는 다분히 대중개도적 차원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작중에 기술된 내용으로 주베의 정신이 공부하는 学徒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것이라 자평(7)한 로엔의 언급도 이와 관계되는 문구로, 적어도 논자의 작가로서의 로항과 『오충탑』 이해는 이 부분에 집중된다. 다만, 내용전개상에 나타나는 시대정신의 수용은 한편으로는 시대정신을 리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그 효용성을 배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금까지 작가로서의 로항에 대한 평가²⁴⁾는 초기의 오자키 고요(尾崎紅葉)의 사실주의와 연계시킨 이상주의라는 문학사적 지적에 이어, 문체나 소재 혹은 주인공 설정 면에서 본 <前近代> 혹은 <非近代>적 성향에 주목하여 의고전주의 작가라는 점이 대세였다.

이에 반해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서구의 근대화 개념으로 일본근대문학을 이해하려는 잣대에서 탈피하여 문명개화의 방편으로써 근대화에 동조하지 않는 혹은 그에 비판적인 개념으로서의 그의 <反近代>적 성향에 주목한 평가²⁵⁾

23) 이는 외래문화의 수용 직후에 나타나는 경향으로, 文章経国思想이 만연하던 平安시대초의 国風文化와 江戸시대초 官学으로 도입된 儒学이후에 제창된 国学은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을 방증할 것이다.

24) 登尾豊 「露伴의<反近代>」(三好行雄·竹盛天雄編 『近代文学2 明治文学の展開』 有斐閣双書, 1977) 참조.

25) 그 시작은 三好行雄의 「反近代の系譜」(『解釈と鑑賞』1960, 1)로, 그밖에 平岡敏夫 「幸田露伴의 評價の基軸」(『国文学』1965, 4), 登尾豊 「『五重塔』의 暴風雨—露伴文学再評價のために—」(『国語国文学研究』第六号, 1971, 4). 단행본으로는 瀬里広明 『文明批評家としての露伴』(未来社, 1971, 9)등이 유명하다.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그가 과연 의고전주의 혹은 <반근대>적 성향의 작가라는 점에만 만족해야 할까?

물론 소설 구성상의 각론적 요소 혹은 문명 비평적 측면에서 보자면 그와 같은 평가도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는다. 그중 『오충탑』의 경우 작중에 飛天夜叉王의 심한 노여움으로 묘사되는 폭풍우를 불교적 견지에서 해석하여 그 의미를 추락한 인간계에 대한 형벌 혹은 경중이라고 본 노보리오 유타카(登尾豊)씨의 언설²⁶⁾은 매우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씨의 언설 또한 대중개도적 작품이해의 한 단면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러나 『오충탑』에 대한 이해는 종래에 예술의 신비성과 주베의 明匠性²⁷⁾, 혹은 그의 입신출세주의에 초점을 맞춘 지적²⁸⁾이 적지 않다. 그중 특히 주베의 입신출세주의의 경우는 그것이 명치 20년대 초 民友社의 평민주의에 의해 수정된 입신출세주의에 대응하는 인간상 조형에 있다²⁹⁾고는 하나, 작중의 주베의 캐릭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입신출세보다는 오히려 무상의 공명심에서 비롯된 장인정신 바로 그것인 것이다.

요컨대 『오충탑』에서 로항은 아마도 구시대의 직업윤리에서 벗어난 주베와 겐타와의 주도권경쟁을 내용전개에 핵심에 두고 이를 당대의 시대정신으로 극복하며 대중개도 차원에서 금후 일본 일본인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했을 것이다. 그 핵심에 자리하는 것이 일본고래의 장인정신으로, 『오충탑』 이해의 무게중심은 바로 여기에 두어야할 것이다.

로항 문학에 보이는 대중개도 성향은 비록 그 접근방법에는 차이가 있다할지라도 이미 당대의 평가에도 존재한다. 즉, 로항을 높게 평가하기로 유명한 기타무라 도코쿠(北村透谷)는 『오충탑』 발표 다음해 「나는 이상주의 시인 로항이 사실주의 작가영역에 투입하여 까마귀 흉내를 낸다고 회자되는 것 보다, 오히려 그 기발한 생각을 키우고 그 哲理를 연마하여, 진실로 大光明을 불러일으켜 번뇌의 중생을 제도하기를 기원해마지 않는다」³⁰⁾라고 언급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번뇌의 중생을 제도」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대중개도의 일환임을 방증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언급으로는 야나기다 이즈미(柳田泉)가 명치 20년대 초반을 스스로 일본의 사명감을 강하게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확실히 의

26) 上掲 登尾豊의 논문(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幸田露伴・樋口一葉』有精堂, 1982. 所収)
 27) 片岡良一「露伴の輪郭」(『文学』1947, 10)
 28) 伊藤整「紅葉と露伴」(岩波講座『日本文学史』第二十卷, 1958, 9 所収). 前田愛「露伴における立身出世主義—『力作型』の人間像—」(『国語と国文学』1968, 6)
 29) 上掲 前田愛의 논문
 30) 北村透谷「『伽羅枕』及び『新葉末集』」(『女学雑誌』308・309, 1892, 3). 注24)에서 재인용.

식시키려고 선두에 서서 자신이 지향한 바대로 대중을 선도하는 시기라 자평하며, 『오층탑』은 이와 같은 시기의 작품으로서 매우 유효적절한 방법론이라 지적³¹⁾하고 있다.

아울러 로항의 에세이 『노력론』에는 노력과 실천만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기혁신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선 낡은 습관을 버리는 것에서 출발하라는 내용³²⁾을 담고 있어, 작품외적인 요소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의 대중개도 성향을 엿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의 이와 같은 성향은 또한 『오층탑』에 한해 앞서 발표한 「니노미야 손토쿠옹(二宮尊徳翁)」을 통해서도 인식할 수가 있다. 즉, 지계를 지고 일하며 독서에 열중하는 소년 니노미야 긴지로(二宮金次郎)상이 그에 의해 발표된 후 손토쿠는 참을성과 근면성실, 정직, 검소의 대명사로 국정교과서의 도덕교재에 게재되고 전국의 초등학교에 동상이 세워지는 등, 그의 대중개도 성향은 여기서 구할 수가 있고³³⁾ 또한 일정부분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오층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오층탑』은 로항의 작품 중 대중에게 가장 많이 읽힌 책으로 한때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고 영화나 TV드라마³⁴⁾ 혹은 연극무대를 통해 상연되는 등, 그 인기는 오늘날도 식을 줄 모르는 추세이다. 특히 연극의 경우 사이키 준코(佐伯順子)씨에 의하면³⁵⁾ 명치 37년(1904) 오오사카(大阪)에서 東京座에 의해 초연된 이래, 이후 공백기를 보이다가 1965년 前進座에 의한 공연을 시작으로 1992년 시점까지 총 627회나 전국각지의 무대상에 연출되었고 2007년 1월 시점에서 보자면 무려 700회를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 2006년도에는 영화(秋原正俊監督, ガッツ石松主演)로도 재차 상영되었다 한다. 아울러 씨는 특히 1965년 이래 무대상에 올려진 『오층탑』 공연의 역사가 일본의 고도성장기의 사회현상과 중첩된다는 점에 착목하여 『오층탑』을 문명개화기 이후의 일본의 근대화, 나아가서는 전후 일본사회의 성장의 원동력이 된 정신적 지주라 평가하고 있다. 이에는 물론 씨도 언급하듯 주베의

31) 柳田泉 「解題」(明治文学全集25 『幸田露伴集』 筑摩書房, 1968. p.392)

32) 고다 로한지음, 김옥 옮김 『노력론』 지훈출판사, 2006. 참조

33) 그밖에 『오층탑』 이후로 명치 32년에서 34년에 걸쳐 『新小説』에 연재된 것이긴 하나, 그의 「一國の首都」論에는 수도에 대한 교훈으로 국민적 자각을 구하는 내용이 있어, 이 또한 그의 민중개도적 성향의 일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白幡洋次郎 「露伴の都市論を読む」(井波律子・井上章一共編 『幸田露伴の世界』 所収, 思文閣出版, 2009. 1) 참조.

34) 영화나 TV드라마의 경우, 『오층탑』은 발표 52년 뒤인 1944년 8월 川口松太郎 각색, 五所平之助 감독으로 영화화되었으며(리닝타임 1시간 7분) TV드라마로도 여러 번 방송되었다 한다. 권윤경 「『오층탑』(五重塔)의 시대정신—일탈(逸脱) 사고행위와 개인, 개인주의—」(『日語日文学研究』 제 63권 2호, 2007) 참조.

35) 佐伯順子 「『五重塔』という『プロジェクトX』—前進座『五重塔』と日本の高度成長」(井波律子・井上章一共編 『幸田露伴の世界』 所収, 思文閣出版, 2009. 1)

부인 오나미와 겐타의 처 오키치(お吉)의 내조를 통한 良妻로서의 모습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아실현의 욕구로 오로지 자신의 일에만 전념하는 그녀들 남편의 장인정신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오충탑』이 갖는 대중개도 성향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작품이 주베라는 캐릭터를 통해 일본고래의 장인정신을 부각시키려는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음에 기인한다. 그 저변에는 명치 20년대 초 사상계에 불던 국수주의의 영향으로 국민적 자각을 도모하고자 했던 작자 로항의 의도가 잠재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로항에 의해 재현된 장인정신은 그 의도대로 오늘날까지 일본의 사회현상의 하나로 그 명맥이 유지되었고, 그 배경에는 상기와 같은 시청각 매체를 통한 거듭된 상연에 힘입은 바 클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오충탑』이 갖는 명작으로서의 감동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 작품이 갖는 대중개도 성향의 긍정적 효과를 염두에 둔 결과가 아닐까싶다.

4. 맺음말

『周易』繫辭上에는 <書不尽言, 言不尽意>라는 말이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자면, 비록 자신이 쓴 글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뜻을 담아낼 수는 없다는 말이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로항이 『오충탑』을 집필하게 된 정확한 동기나 의도는 우리네 향수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당대의 시대적 배경과 작품내용을 통해 볼 때, 우리는 로항의 『오충탑』 집필 의도의 일면에는 명치라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즈음하여 일본고래의 직업의식으로서 장인정신의 계승을 염두에 둔 대중개도 차원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라도 인식할 수가 있을 것이다.

거듭 언급하지만 『오충탑』이해의 핵심에는 장인정신이 자리한다. 이 작품의 주요테마는 폭풍우에도 끄떡없는 견고한 탑을 완성하기까지의 주베와 겐타와의 갈등, 그리고 그들의 정신적 교류로, 둘은 공히 일생일대의 오충탑 건립을 자신의 손으로 해내고자하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강하게 품은 캐릭터로 묘사된다. 그러나 진정한 장인정신은 세상을 사는 지혜(지략)보다는 자신이 신뢰하는 솜씨가 우선순위로, 주베의 장인정신은 비록 지략은 없으나 개인의 사리사욕 없이 명예로운 일에 자신의 훌륭한 솜씨를 발휘하여 후세에 이름을 남기고자하는 무상의 공명심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베와 겐타와의 탑 건립을 둘러싼 경쟁은 『오충탑』 집필의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도 극복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로항은 경쟁을

용인하는 당대의 시대정신을 작중에 가미하여 이를 보편타당한 일로 순화시켰다. 이를 가능케 한 주베의 외곶성향의 배경에는 당대의 무사도 정신은 물론이거니와 한편으로는 일본고래의 장인이 갖던 자긍심이 자리할 것이다.

그런데 『오충탑』에서 로항은 장인(職人)의 외관을 결코 좋은 이미지로 그리진 않았다. 즉 그는 장인을 결과적으로 전생의 업보로 고통을 받는 존재(3), 혹은 말과 행동거지가 상스러운 존재(21)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마음가짐만큼은 대단하여 자신의 일에 한해서는 욕심이 없고 일에만 열중하여 숨씨를 통하여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자하는(13) 이른바 무상의 공명심의 소유자로도 묘사하고 있어, 특히 주베의 정신은 분명 오늘을 사는 일본인에게도 장인으로서의 긍정적 이미지를 각인시켰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수학자 김용운씨가 굳이 일본인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꼽자면,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라 언급³⁶⁾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주베의 장인정신과 직결되는 것으로, 로항과 그의 『오충탑』이 빛을 발하는 진가는 바로 이와 같은 장인정신의 계승과 관련된 대중개도 차원에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는 로항의 사후 추도 강연회에서 로항翁의 진가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수년, 수십 년, 아니 백년이상이 필요할지도 모른다하며 후일 분명 세상 사람들이 경이로운 눈으로 옹의 업적을 다시금 회고할 날이 올 것이라 한다.³⁷⁾ 또한 기쿠치 강(菊地寛)이 <文壇の大御所>에서 로항이야말로 국보적 존재라 칭하고, 사이토 모키치(齋藤茂吉)가 로항의 언설은 거의 실험을 거친 것으로 蒙昧한 糊塗를 행한 적이 없으며 소설에 나오는 재료는 모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로, 『오충탑』 또한 마찬가지로 자평한 로항評³⁸⁾등은 명치시대를 경험한 로항의 국가주의관과도 관계되는 것으로 그의 실험정신을 대변할 것이다.

올해로 로항 사후 66년째이다. 그러나 그가 개도한 장인정신은 분명 오늘날 일본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되었을 것이다. 즉, 南北朝内亂과 더불어 일본의 2대 대변혁이라 일컫는 명치유신은 조직사회에서 개인, 혹은 개인주의 사회로의 대변환이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일본의 장인정신이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로항의 『오충탑』을 통해 보는 대중개도 성향의 영향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이에선 시청각 매체를 통한 전국규모의 『오충탑』 공연에 힘입은 바 클 것이다. 이는 사회현상이 결과적으로는 문학작품을 통해서도 현실화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본고의 타이틀을 『오충탑』 고

36) 김용운 『한국인과 일본인1 칼과 붓』 한길사. p.216

37) 谷崎潤一郎 「露伴翁追悼講演會に寄す」(『新文學』1947, 10). 注24)에서 재인용.

38) 齋藤茂吉 「露伴先生に関する私記」(『文學界』1971, 1) (日本文學研究資料叢書 『幸田露伴・樋口一葉』有精堂, 1982 所収)

찰에 두지 않고 굳이 사회현상과 연관시킨 이유는 로항의 발표이후 장인정신이 차지하는 일본사회의 영향이 너무나도 큰 점에 있다.

【참고문헌】

- 고다 로한지음, 김옥윙김(2006) 『노력론』 지훈출판사
- 권윤경(2007) 「『오층탑』(五重塔)의 시대정신—일탈(逸脱) 사고행위와 개인, 개인주의—」
『日語日文学研究』 제 63권 2호
- 김용운(1994) 『한국인과 일본인1 칼과 붓』 한길사. p.216
- 網野善彦(1980) 『日本中世の民衆像—平民と職人—』 岩波新書, p.107
- 網野善彦他(1981) 『中世の風景(上)』 中公新書, p.88-89
- 植木枝盛(1879) 『民権自由論』 『明治文化全集 自由民権篇』 日本評論社, p.184
- 笠原一男·野呂肖生(1978) 『史料による日本史』 山川出版社, p.84
- 片岡良一(1947, 10) 「露伴の輪郭」 『文学』
- 清川雪彦·山根弘子(2004) 「日本人の労働観—意識調査にみるその変遷」 『大原社会問題研究所
雑誌』(法政大学) No.542
- 佐伯順子(2009) 「『五重塔』という『プロジェクトX』—前進座『五重塔』と日本の高度成長」 井波
律子·井上章一共編 『幸田露伴の世界』 所収, 思文閣出版
- 阪谷素(1874, 10) 「尊意説」 『明六雑誌』 第19号
- 白幡洋次郎 「露伴の都市論を読む」(2009)井波律子·井上章一共編 『幸田露伴の世界』 所収, 思
文閣出版
- 帝国データバンク資料館·産業調査部編(2009) 「百年続く企業の条件」 朝日新書
- 日本文学研究資料刊行会(1982) 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 『幸田露伴·樋口一葉』 有精堂 所収
- 登尾豊(1977) 「露伴の<反近代>」 三好行雄·竹盛天雄編 『近代文学2 明治文学の展開』 有斐閣
双書
- 古川清行(1991) 『スーパー日本史』 講談社, pp.428-429
- 前田愛(1968, 6) 「露伴における立身出世主義—『力作型』の人間像—」 『国語と国文学』
- 松本三之介(2012) 『明治精神の構造』 岩波現代文庫, pp.14-26
- 山本七平(2006) 『日本資本主義の精神』 ビジネス社
- 柳田泉(1968) 「解題」 明治文学全集25 『幸田露伴集』 筑摩書房. p.392

要 旨

職人魂は、日本を代表する職業意識で、今日まで日本の社会全般にかけて見られる普遍的な価値ということもあって、一つの社会現象と見做すことが出来よう。ところが、職人魂の由来は、江戸時代の身分制度、あるいは徒弟や家元制度などに繋がれる、いわゆる〈忠〉の文化から求められるというのが衆論ではあるが、その背景には平安時代中後半以来の、職人のもつプライドもまた見逃すことは出来ない。

ところが、問題は、そのプライドと関係する職人魂が、時代が一変し、欧米化一途を傾注しながら、四民平等を叫んだ明治時代以来、近現代に至るまで存続されたことで、それを可能にした背景としては、大衆小説としての幸田露伴の『五重塔』の影響もまた排除できないであろう。

文学作品、とりわけ小説は、時代現象を反映し、場合によってはそれをリードする属性をもつが、この『五重塔』はこれらを兼備した作品と評価できよう。すなわち、まず作中に見る〈十兵衛〉と〈源太〉との塔の建立をめぐる主導権競争や、〈十兵衛〉の一途な性向は、明治時代の時代精神を反映したものに他なるまい。また、これは当時流行っていた国粹主義の影響によるものであろうが、この作品は思うに、日本古来の長所を行かし、大衆の志向すべき職業意識を論し導こうとした露伴の意図が窺え、そういった面で、この作品は時代精神をリードした先駆的な作品と考えられる。その核心にあるのが、世を渡る智慧よりも腕前に重点をおく〈十兵衛〉の職人魂で、これは、個人の私利私欲もなく、塔の建立という名誉ある仕事に自分の立派な腕前を発揮し、後世にその名を残すという無償の功名心、それなのである。これは思うに、今日の日本の発展に肯定的に作用した要素であり、また社会現象が文学作品を通して現実化しうることを傍証することでもあろう。

キーワード : 사회현상(Social phenomenon), 장인정신(Craftsman spirit),
시대정신(Zeitgeist), 무상의 공명심(Ambition of grauitousness),
자긍심(Self-esteem), 대중개도(Populace guidance)

투 고 : 2013. 5. 31
1차 심사 : 2013. 6. 15
2차 심사 : 2013. 7. 6